

전일동향

전일 대비 3.60원 하락한 1,504.30원에 마감

1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90원 하락한 1,508.80원에 개장했다. 17거래일째 이어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세로 환율 상승폭을 넓히다가, 전일 대비 3.60원 하락한 1,504.30원에 마감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8.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1.79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08.80	1518.20	1500.00	1504.30	1511.30
	엔화	946.67	951.99	940.58	941.79	-
	유로화	1757.87	1767.82	1747.92	1749.51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	-3.98	-7.85	-14.35
	결제환율(수입)	-0.69	-2.49	-5.49	-10.7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지정학적 긴장감 재고조에...1,51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1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04.30) 대비 10.20원 상승한 1,513.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 리스크와 위험회피 심리 확산으로 상승 전망한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예고에 반발하며 대미 대화 중단을 시도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감이 재고조되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전환했고, 시장 내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었다. 아울러 5월 ISM 제조업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은 달러 강세 기조를 뒷받침하는 재료로 소화되며,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속 의지를 강조하며 확전 우려가 일부 상쇄되었다는 점은 환율 상승폭을 일부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07.25 ~ 1518.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8219.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20원 ↑
	■ 美 다우지수 : 51078.88, +46.42p(+0.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96.6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35 억원